

한국사회 쟁점과 문화

일각의 주장이 대안을 만든다

_질문과 재료 몇 가지

강상구 문화기획협동조합 별책부록 대표

당신이 선 자리, 어떻게 봐야 할까?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입장에 따른 견해 차이에 대해 이렇게 심장을 툭 건드리는 말이 또 있을까. 명쾌한 면과 동시에 말 속에 묻어있는 ‘회피와 변명’의 자연스러움이 때론 불편함을 주기도 한다.

만화 『송곳』, 그리고 드라마 「송곳」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주제의식이다.

삶은 만화와 같고, 드라마와 같다. 우리는 TV 드라마를 보면서 주변을 인식한다. 초라한 우리네 모습도 TV속 주인공들의 좌충우돌 모습을 보며 동일시하고 고단한 하루의 페이지를 덮는다. 내일은 오늘보다 낫길 바란다. ‘나아진



다는 것은 무엇일까. 누군가에게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재산이 불어나는 것 일 테고, 누군가에게는 노력한 만큼의 어떤 결과를 얻는 것 일 테다. 그런데 나아지는 것과 세상이 올바르게 흘러가는 것은 동일한 질량을 지닐까. 아니 그보다 먼저 그것들은 모두 같은 방향일까.

그런데 만약 내가 나아지는 것만큼, 딱 그 만큼의 크기로 세상이 거꾸로 흘러간다면 나는 대체 어디를 바라보며 뭘 것일까. 어느 날 문득 이런 내 모습을 바라보는 나를 상상해 본다. 삶은 언제나 긍정적일 수 만은 없다. 나는 늘 옳고, 나는 언제나 정의로울 것이고, 쿠테타로 정권을 찬탈한 어떤 놈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우리는 자신하지만 말이다.

“그 당시에 친일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했지.”

아버지는 10여 년 전 그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말다툼 끝에 나온 그 말에 나는 너무나 놀랐지만 더 이상의 논쟁은 불가능했다. 일제시대, 그리고 전쟁 시기를 지나온 아버지 세대의 삶을 감히 내가 어찌 하나 하나 따지고 들 수 있을까. 순리대로 살며 어느 한 시대 동안 세상과 삶의 방향이 같았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세상의 방향과 당신 삶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른다. 그 끝에 나온 한 마디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또 나는 묻는다.

세상과 삶의 방향이 꼭 같아야 하는 것일까?

TV드라마 속 재벌2세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보다, 외계인과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가 더 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지금의 세상에서라면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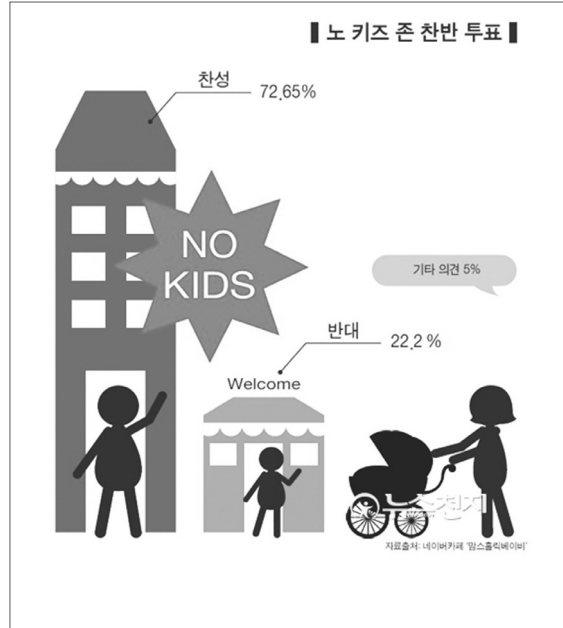
우리는 어디에 서서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지난 2017년 한 해동안 한국사회는 ‘혐오담론’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혐오의 칼끝이 사회적 약자를 향하고 있다. 배려하면 배제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사회적 배제에 대한 공포가 혐오를 불러온다. 온 사회가 중병을 앓고 있다. 타인을 배제하는 것이 문화가

되어 전염병처럼 번진다. 그리하여 혐오의 칼끝은 다시 자신을 향한다. 인류는 핵폭탄 때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혐오 때문에 멸종할지도 모른다. 핵폭탄 사용의 배경에는 정의의 탈을 쓴 혐오가 자리하고 있다.

여성과 아이, 노인, 성소수자, 장애인, 난민 등 나와 우리가 모두 혐오 대상에 오르내린다. 이 논란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노키즈존 논란

찬성

- 영업방침을 정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이므로 존중해야 한다.
- 소란 피우는 아이들과 이를 방치하는 몰상식한 부모 탓에 어쩔 수 없다.
- 아이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
- 소란스런 아이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서비스를 받고 싶다.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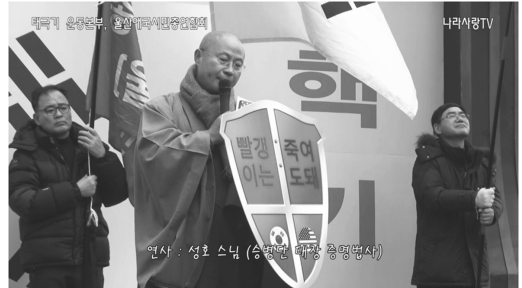
- 아이를 포용이 아닌 배제하는 논리이며 차별이다.
- 모든 아이들이 소란스러운 것 아니고 몰상식한 부모는 일부
- 아이를 위한 안전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사회전체가 수용하는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 내 돈 내고 내가 간다는데, 내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 같아 싫다.

「레지던트 Evil」이나 「부산행」은 좀비를 다룬 영화다. 좀비는 유령과 인간의 중간 경계라고 한다. 1800년대 스페인, 프랑스가 아이티를 지배하면서 아이티에 부두교를 믿던 아프리카 사람들을 데려와 심한 노역을 시켰다. 농장주들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못을 박거나 좀비의 모습이 되게끔 끔찍하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노예들은 농장주들에 대한 복수의 방법으로 시체들을 이용, 부활시켜서 농장주들을 혼냈다는 이야기가 좀비 이야기의 시작이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시체를 이용한다는 것은 공포스럽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망자를 모독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당시 그들이 당한 폭력의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주는 것 아닐까. 좀비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내장을 꺼내고 잔인하게 훼손하여 자신과 같은 존재로 만든다. 이는 마치 당시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를 재현한 것일 수 있다. 지배계급 입장에서는 기존의 사회체제는 유지하고 지켜야 할 사회 질서인 것이다. 레지던트 Evil의 제약회사처럼 말이다. 이렇게 좀비는 지배와 피지배의 정치성을 묘사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좀비와 함께 생활한다면 그들은 혐오의 대상일 것이다. 아주 당연하게도 말이다. 우리의 기본 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고 나와 가족들을 위협에 빠뜨리고, 자칫하면 무시무시한 그들의 모습처럼 된다니 끔찍 할 따름이다. 그러니 보는 즉시 죽이거나, 팔 다리를 훼손하고 머리를 잘라 버려도 상관없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다시 죽여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다. 고대 로마법에서 언급한 ‘호모사케르’처럼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르주 아감벤은 역사적으로 유태인과 좀비를 같은 반열로 언급한다.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이 호모사케르가 되어간다. 인간과 좀비의 경계처럼 위태롭게 서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사람들, 사회 속에서 섞여 살아가지만, 존재 자체로 인정 받지 못하는 사람들, 하위계급들, 잉여라 불리는 사람들, 한때 좌파 빨갱이라 불리던 우리의 친구들, 군대내 동성애자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분류될지 모르는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



제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나는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 한다. 지하철 객실에서는 임신부 배려석에 대한 안내방송을 자주한다. 그와 같은 노력 때문인지 임신부 배려석에 앉는 용감한(?) 사람들은 많이 줄었다. 임신부 배려석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2013년도부터 시행해 왔다. 주차장에 흔히 볼 수 있는 ‘여성우선주차’ 공간처럼 임신부 배려석 역시 강제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보려는 의지가 담긴 것만은 분명하다. 임신부 배려석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동의하지 않은 강요된 배려라고 규정하고, 그런 방식이 옳은가 라는 의구심 섞인 이야기도 있다.

지하철 노약자석에 대한 자리다툼 민원이 2008년 62건, 2009년 170건, 2010년 397건, 2011년 420건(서울도시철도공사)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노약자석에 앉은 임신부가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는 보도도 있다. 당시 임신7개월이었던 A씨는 술 취한 남성으로부터 “왜 젊은 사람이 노약자석에 앉아 있느냐”며 자리양보를 요구 당했고, A씨는 임신부 뱃지까지 보여주며 임신 사실을 이야기 했지만, 사실 확인을 하자며 임부복을 들추고 부른 배를 때리기까지 했다([카드뉴스팡팡]“지하철 노약자석, 전용좌석 아닌 배려석입니다”, 이 투데이, 김다애, 2016.09.30).

버스에서는 노약자석에 앉은 중년 남성을 노인이 폭행하는 사진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노약자석 폭행논란! 노인 발차기에 날아간 중년남성”, 더팩트, 백윤호 인턴기자, 2017.06.03).

일부 노인들의 이야기로 전형화의 오류를 겪지 말아야 하는 것도 주지해야 한다.

이렇게 일상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제언과 권고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한 작용과 반작용의 스펙트럼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고와 판단을 견지해야 하는 것일까?



<그림> 자리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폭행을 하는 장면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시절 한국 정당정치 관련 수업을 들었다. 그 수업을 듣는 문화관련 학생은 나 혼자였는데, 어느 날 내가 뜬금없이 질문을 했다. 굳이 선거를 해야만 정치인을 뽑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내 질문이었다. 어차피 현대 자본주의 방식의 선거는 자본의 싸움이지 진심과 선의의 경쟁이 아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였지만 잘 전달되지 않았고, 다른 학생들이 쿵쿵 대면서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어이없는 사람일세’ 정도로 해석했다. 그 후 나는 녹색평론에서 김종철 선생이 언급한 ‘제비뽑기 민주주의’ 글을 접했다.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에서 공직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제비뽑기가 고안되었다는 얘기였다. 유혹에 약하고, 빠르게 부패하며 권력과

군림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허약한 인간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 제비뽑기를 찾았다는 것이다. 나는 예술가와 연구자는 전개 방식이 다를 뿐 상상력을 근간에 두는 것은 같다고 말을 하곤 하는데 역시 그러했다.

그런데 정말 인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많은 방도 가운데 ‘제도’는 어디쯤 위치해 있는 걸까?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일관적인가?

‘예술적이다’라는 표현은 쉽게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왜 그런가?’라며 이어지는 질문에 예술적인 논법과 답을 제시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예술이 곧 철학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철학이 예술이 되는 시대가 시작된지 오래이다.

아서 단토는 예술이 철학적 판단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술 그 자체가 철학화하며, 심지어 철학화한 예술이 표현했던 선언문적 거대서사 마저도 우리 시대에는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고 보았다(예술인간의 탄생, 조정환, 88p).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남은 것은 어찌보면 이제 설득뿐이다.

뒤샤는 되고, 앤디워홀은 되고, 백남준은 되는데 조영남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예술노동에 대한 대우가 너무 소홀해서일까? 작품에 대한 예술적 설득에 실패한 것일까?

우리가 논해야 하는 지점은 무엇일까? 동시에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프레임은 무엇일까?